

금호타이어, 유럽 첫 생산기지 ‘폴란드 오폴레’ 확정

연 600만본 규모 2028년 가동 목표

“현지생산으로 경쟁력·브랜드 강화”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해 폴란드 오폴레에 첫 유럽 생산기지를 짓는다.

금호타이어는 폴란드 오폴레주를 유럽 신공장 부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폴란드 오폴레주에 건설되는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8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본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총 5억8700만달러(약 8606억원)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입지 조건, 판매 확대 가능성, 투자 안정성, 수익성, 인센티브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물류, 인력, 인프라 등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비롯해 유럽 내 공급 안정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한 결과 폴란드 오폴레주로 확정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했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OE(신차용 타이어) 시장의 약 17%, 자사 매출 26.6%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에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으나 신공장이 설립되면 안정적인 판매 성장의 발판을 확보하고, 고성능·고인치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HVP) 중심

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현지 신차용 타이어(OE) 대응력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유럽 시장은 글로벌 타이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한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 생산과 공급을 통해 품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2027년 말까지 연간 530만본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합평 신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폴란드 신공장 부지 확정으로 금호타이어는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에 최적화된 현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경총, 12월 금요포럼서 공동체·경제 전망 조명

오동찬 소록도병원장·곽수중 리엔경제연구소장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연말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글로벌 경제 흐름을 짚는 12월 금요조찬포럼을 마련한다.

국내 최장수 민간조찬포럼으로 평가 받는 금요조찬포럼은 지역 CEO와 노사 민정 관계자, 오피니언 리더 등 800여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현재 회원사는 875개사다.

이번 포럼은 내년 1월 2일 열리는 광주·전남 10개 경제기관 공동 신년인사 회 일정에 따라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광주경총은 지역 경제계가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 의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강연은 오는 5일 열리는 제1706회 포럼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원장이 ‘나의 가족, 나의 한센인’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다. 오동찬 원장은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해온 의료인의 사선을 바탕으로 가족의 의미와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오 원장은 제34회 아산상 의료봉사상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의료봉사 전문가로 KBS·



오동찬

곽수중

MBC·EBS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인물이다.

12일 열리는 제1707회 포럼에서는 경제전문가 곽수중 리엔경제연구소 대표가 ‘2026년 이후 세계 및 한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단에 선다. 곽수중 대표는 연합뉴스 경제TV와 YTN 라디오 등

에서 직접 진행한 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시의성 높은 분석을 선보여 왔으며 ‘경제대전망 2026~2030’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다”며 “지역 기업과 경제계가 함께 성장 동력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 및 회원 가입 관련 문의는 광주경총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게임·e스포츠 미래 전략 방향 공유

오늘 광주e스포츠경기장서 포럼…국내외 연사 참여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일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e스포츠의 교육·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 교육 모델 구축 △글로벌 협력과 도시 혁신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게임·인간·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e스포츠의 새로운 해석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외 연사 10여 명이 참여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NASEF 제럴드 솔로몬 대표, ‘철권’ 프로 게이머 무를(배재민) 선수, 이집트학연구 소 박민수 소장을 비롯한 학계·국제기관·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e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이경주 원장은 “이번 포럼은 기존 전문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 구성과 연사 섭외에 공을 들였다”며 “e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2일 광주e스포츠경기장을 방문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차지직·숏 등 광주e스포츠경기장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GGM은 1일 광주 관산구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성가정, 백선바오로의 집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 400포기를 전달했다.

GGM, 김장김치 전달…“나눔 실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GGM은 1일 광주 관산구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성가정, 백선바오로의 집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 400포기를

전달했다.

앞서 GGM 상생봉사단 관계자들은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김민중 GGM 경영지원본부장(상생봉사단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들이 정성껏 참여했다”며 “김장김치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GM은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미식광주 도시락으로 상생가치 확산

광주경제일자리재단,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8곳에 전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광주시장에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광주푸드클럽 미식광주도시락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우성 대한민국 16대 조리명장이 참여한 광주푸드클럽에서 준비한 ‘미식광주 도시락’을 광주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8곳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전달식에는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장상습 광주시장에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안우성 명장, 박영숙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관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푸드클럽은 지역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복지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습 광주시장에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정성 어린 도시락을 준비해 준 재단과 광주푸드클럽 참여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우성 명장은 “문턱 없는 식당 등 장애인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판로 확대, 지역 먹거리 브랜드 구축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복지·교육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광주형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